

기고

이형복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위



전기화재 예방, 사소한 관심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 9월말 기준 전남도 화재 발생건수 총 2,109건 중 그 원인이 부주의 1,275건, 전기로 인한 화재가 440건으로 부주의의 제외된 전기화재 비율이 52%를 차지할 정도로 평소 우리는 전기사용관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기화재는 낡은 전기기구나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기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부족 또는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하여 전기기구의 과열 및 탄화상태를 가져와 발생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

정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전기용품 사용 시 올바른 사용법의 숙지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화재의 발화 원인으로서는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전선의 합선 또는 단란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기타 원인에 의한 발화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요령으로는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둔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개폐기(뚜껑비집)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 개선한다. 각종 전기공사 및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

고 한 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전선이 꼬이거나 묶여서 사용하면 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므로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한다. 전기담요는 자주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며, 각종 장식용 트리 등에 설치한 소형전구는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서 여러 선을 끌어 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비닐전선은 열에 견디는 힘이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특히 전기기구 구입 시 KS, 품, 검 등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은 무지와 안전에 대한 의식부족에서 일어나니 국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예방의식을 생활화하여 전기화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社說

무안공항 활성화 꾀해야 한다

침체일로를 걷던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는가 싶더니 일본노선의 폐쇄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안타깝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일본 노선 하늘길이 모두 막혔다. 올해 상반기 일본 기타큐슈·오이타·후쿠오카 노선이 차례로 폐쇄된 데 이어 운항 횟수를 줄였던 도쿄와 오사카 노선까지 결국 중단했다. 전남도는 항공사 손실보전금을 늘려주며 대체 노선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본 노선 중단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주 4차례 운항하던 제주항공의 무안공항-도쿄 나리타 구간이 이달 26일 이후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 4회의 무안공항-오사카 간사이 구간도 오는 26일 이후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노선은 올해 상반기 주 7차례 매일 운항할 정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하반기 들어 주 4차례로 운항 횟수를 줄였고 동절기를 앞두고 결국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도쿄·오사카 노선까지 멈추면서 무안공항과 일본을 오가는 하늘길은 모두 막혔다.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이 맡았던 무안공항-일본 노선의 잇따른 운항 중단 이유는 탑승객 감소다. 일본 경제보복이 표면화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중 일본 노선 이용객은 전체 32%에 달했다. 일본 노선 중단은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올해 연간 이용객 1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전달인 8월 이용객 수 10만3천여명(국내선 2만3500명·국제선 8만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항공사와 전남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신규노선 확대 등에 총력을 다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야외활동시 골절 주의 생활화 해야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있다. 자전거, 워터파크,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가족 단위 나들이도 잦아지면서 넘어져 다치거나 부딪치는 등의 사고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시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신체를 부딪친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 학동기 이전의 아이는 여러 종

류의 불안전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눈에 띄게 부어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한다. 또 다치지 않은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부위를 아파하거나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방사선 촬영을 해보아야 한다. 일단 팔, 다리의 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부상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고 다친 부위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긴 후 확인한 손상부위를 안정되게 고정

한다. 고정할 때에는 반지나, 시계 등을 제거하고 골절부위의 윗관절과 아래관절을 모두 고정해줘야 움직임에 의한 이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병원으로 이동할 때까지 손상부위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골절 부위를 원상태로 돌려 놓으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주변 근육조직이나 혈관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상부위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만약 뼈끝이 튀어나온 개방성 골절의 경우에는 튀어나온 뼈끝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상

처를 멸균된 거즈나 깨끗한 수건, 손수건 등으로 덮고 지혈시켜주며 가능하면 다친 쪽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도록 한다. 골절의 경우에는 가급적 덜 움직이는 것이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손상을 막는 지름길이므로 부목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골절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 골절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이 유의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지휘팀장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